

#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전남아트 박람회 ART 061

## 29일까지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진행

전남문화예술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 스타를 발굴하는 전남아트 박람회 ART 061이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27일 오후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전라남도도와 전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의 풍요로운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 예술인의 수도권, 더 나아가 세계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개막식은 숨(Breath), 뿌리(Root), 잎(Leaf), 피움(Blossom) 4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숨'에선 문화예술인의 젊은 숨소리가 들려온다는 내용으로 비보잉그룹 퓨전엠펙시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뿌리'에선 전남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 영상, 청년 예술인들의 질문이 담긴 비전 영상이 송출됐다. 비전 영상 이후 '잎'에선 청년 예술인들의 질문에 대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답변과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사의 개막선언이 진행됐다. '잎'에선 화려한 개막식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행사로 ▲시각·공연 분야 문화예술콘텐츠 부스 ▲아트(ART) 061 라이징스타 오디션 ▲전남문화예술 브랜드 연구개발(R&D) 토크쇼 ▲아트 061 미술품 경매쇼 등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27일 진행된 라이징스타 오디션은 지역의 청년 스타 발굴을 위해 최초로 추진되는 행사로, 다양한 장르와 매력 넘치는 콘텐츠로 관람

객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아낌차게 만든 첫 무대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바꿔 전남 행복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인이 예향 전남에서 멋진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익 기자

## 곡성 '금실팔기' 수출 시작 멜론주식회사, 품질 교제 성공

곡성군은 27일 곡성멜론주식회사에서 수확한 금실 팔기 100상자(15kg 150kg를 경남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납품함으로써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한 팔기는 곡성멜론 주식회사(대표 이선재)에서 생산한 '금실' 품종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했으며, 당도가 높고 단단하여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다. 기존 곡성군의 팔기는 '설향'이 수출품종이었으나, 올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을 통해 품종을 변경해 '금실' 품종으로 재배, 수출하게 됐다.

'금실'은 저장성이 뛰어난 '매향'과 당도가 높고 과가 큰 '설향'을 교잡해 만든 품종으로, 현재 수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곡성군과 곡성멜론주식회사 참여농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이선재 대표는 "올해 첫 금실팔기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60여톤을 주요 수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황성민 기자

## 김희수 진도군수, 노인복지 대상 수상 다양한 노인복지·삶의 질 향상 기여한 노력 인정



김희수 진도군수가 (사)대한노인회 주관,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대상은 어르신들을 위해 공헌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동안 진도군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활동 지원, 찾아가는 물리치료와 체조교실, 한글학교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과 사회참여에 힘써

왔다.

또한 마을 경로당에 지역사회봉사지도를 위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4대 가정효도수당 지급, 면 단위 노인복지관 신·증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 목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당부 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물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전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까지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년 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조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운행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영광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돌입

내달 19일까지 예산안 등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규)는 27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첫날 강종만 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루어지고, 3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강현 의원이 간사에는 정선우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12월 14일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영광=서종민 기자

## 해남, 농식품 창업지원 '매출증대·신규고용' 일석이조 관내 33개소 참여... 농수축산물 상품화 온라인 경쟁력 확보 지원

해남군이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은 해남군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상품화하여 온라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개발·생산을 지원은 물론 민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제품홍보·판매, 영상 및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11개소씩 지금까지 33개소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연간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 무화과 생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클라우딩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금, 무화과청 상품화에 성공해 본격적인 가공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육가공 업체인 떡업체의 경우 출시후 홍보부족으로 방치돼 있던 캄캄용 먹거리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재홍보하면서 판매율이

분체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 상품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어 농가의 자신감 회복에도 큰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3년째에 접어들면서 이번 사업이 안정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광양 용강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 완료

침전지 내 슬러지 수시 배출 통한 안정적 정수처리·예산 절감 기여



광양시 용강정수장은 수돗물 생산 공정 중 침전지에서 처리된 퇴적물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해 11월에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슬러지 수집기 공사는 수어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수돗물로 생산하는 침전지 공정에 발생하는 퇴적물을

기존 3~4개월 주기로 인력 청소방식에서 슬러지 수집기를 이용한 수시, 적정량, 고농도 배출처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전지의 침전효율 증대, 청소 인건비 절약, 후속 탈수 공정 운영시간 감소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또한 용강정수장은 기술진단, 시뮬레이션 점검,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정수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정전 등 재난상황 대비 매뉴얼을 재정비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용강정수장은 현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일대에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지만 시설물 증설공사와 개량사업을 통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개선 및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 화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성공추진 '총력'

농특산물 반가공 생산기반 조성·상품화 지원 등 집중

화순군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성공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올해 4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에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화순의 특산자원인 복숭아, 토마토, 쌀 등을 활용한 반가공 생산 기반 조성과 함께 융복합 상품화 지원, 포

장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반가공품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여 토마토 절임, 쌀가루, 흑하방 분말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반가공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마치고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상품으로는 토마토마리네이드, 제빵용 쌀가루, 전식, 토종상추 차 등이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

다.

융복합 상품 판매 기반 조성으로는 2개소를 추진하여 복숭아 샌드, 복숭아 마들렌, 블루베리 빵 등을 출시, 지역소비처와 연계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 보성,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150%로

보성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9월부터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보성군에 주소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수술 전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서를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 확인과 상담 후 1인 1만 25만 원, 2인까지 50만 원 한도로 병(의)원으로 대상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관내 안과 의원 2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백내장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며 노인 실명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들이 노년기 시력을 회복해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흡족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해 노후 걱정 없는 보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 광양시-파주시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교류활동 '눈길'



광양시농촌지도자회는 파주시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 교류 활동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회원 35명과 함께 파주장단콩 축제장을 방문했다.

축제장에 방문한 광양시농촌지도자회는 파주장단콩축제(11.24~26) 참가관과 함께 광양단감과 광양대봉감 30박스를 준비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며 비타민이 풍부한 가을철 광양 농특산물인 광양감을 홍보했다.

광양시 농촌지도자회와 파주시 농촌지도자회는 2009년 6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해 양 도시의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 파주장단콩 축제 등을 통해 교류 활동을 전개하면서 상호 농업정보 교류와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파주시 농촌지도자회가 광양매화축제에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활동을 가졌으며, 이번에는 광양시농촌지도자회가 파주장단콩 축제에 방문하며 광양감 홍보와 고향 사랑기부체 홍보를 추진했다. /광양=조순희 기자